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 19개 어종,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중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1999~)로, 현재 3단계로 운영 중*이다.

* TAC 적용단계: (1단계) 업종별 총량 설정(시범사업) → (2단계) 어선별 배분(시범사업) → (3단계) 어선별 TAC 배분 및 초과 시 제재 처분 등 모든 절차 실시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AC 대상을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총 623,079톤으로 설정하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어종은 민어로,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되었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치망어업에 대해서는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총량 TAC**를 적용한다.

*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역을 구획하여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하는 어업으로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어 어종별 어획 관리가 어려움

** 어획되는 전체 어획물의 양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

< '26/'27 어기 TAC 주요 변경사항 >

구분	어종	적용업종	적용단계
어종 확대	민어	대형트롤	2단계
업종 확대	살오징어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2단계
	전 어종	정치망	1단계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6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이 추가되며, 4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의 경우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여 어선별로 배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적용단계를 상향하여 어선별로 배분하여 관리하면서 TAC 초과에 따른 제재 처분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재 분리하여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하여 어획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하여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은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530)
			사무관	이정미 (051-773-5533)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	책임자	과 장	강수경 (051-720-2270)
			연구관	권유정 (051-720-2290)
한국수산자원공단	담당자	책임자	실 장	구성우 (051-740-2590)
			대 리	장준철 (051-740-2591)